

# 이혼 후 비양육부모의 자녀와의 접촉 및 관계만족도 \*

## Divorced Noncustodial Fathers' and Mothers' Contact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Children

한경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부교수 김영희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한경혜

Dept. of Child & Family Welfare, Hankyong National Univ.

Assoc. Prof.: Kim, Young Hee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rof.: Han, Gyoung Hae

### ◀ 목 차 ▶

I. 문제제기

II. 관련연구 고찰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해석

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 <Abstract>

Understanding the experience of parents without custody after divorce is important in terms of facilitating their adjustment and positive relationships with their children. Ninety-two noncustodial parents divorced within the previous 5 years completed a structured questionnaire. We examined differences between noncustodial fathers and mothers in terms of the frequency of the contact and the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children. In addition, using the regression model, we analyzed the effects of several characteristics of noncustodial parents, including gender, on the frequency of contact as well as the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children.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noncustodial fathers and mothers exhibited similar low levels of contact by phone and in-person visits. Second, noncustodial parents with a child older than 8 years old visited the child more frequently, and were more satisfied than noncustodial parents with younger children. Third, the level of desire to gain the child custod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frequency of contact and the satisfac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ncustodial parents and their children. Fourth, noncustodial parents with more positive feeling about their former spouse contacted more frequently with the children. Fifth, compared with noncustodial fathers, noncustodial mothers demonstrated a higher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their children.

**주제어(Key Words):** 비양육부모(Noncustodial parents), 접촉빈도(Frequency of contact), 자녀관계 만족도(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children)

## 1. 문제제기

이혼율이 상승하고 이혼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 후 자녀양육을 누가 맡고, 어떻게 키우느냐 하는 것이 점차 중요한 현실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부모 중 한 쪽이 양육자로 선정되면서, 양육자가 아닌 부모와 자녀의 접촉기회는 줄어들게 되고 양육자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역시 스트레스를 받는 등 부모-자녀 관계가 변화하게 된다. 그런데 이혼 후 부모역할 및 자녀와의 관계에 관하여 분석한 국내연구들(김영희, 한경혜, 2004; 이경희, 2003; 장혜경, 민가영, 2002; 한경혜, 김영희, 1994)은 주로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이혼모들이 경험하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이나 부모역할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자녀에 대한 친권 또는 양육권이 없으며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부모역할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에 서구에서는 여성이 주로 양육권을 가지므로 그동안 비양육부모에 대한 논의들은 주로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Amato & Gilbreth, 1999; Arditti & Kelly, 1994; Furstenberg & Nord 1985; Seltzer, 1991). 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이혼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비양육부와 자녀와의 접촉이 줄어들고, 자녀와 친밀성이 떨어지며 정서적 유대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같은 상호작용의 빈도 및 관계의 질적 수준의 저하는 자녀의 적응과 발달에 귀중한 자원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와 자녀들간 접촉의 성격, 내용 및 관계의 질을 파악하고, 이들 접촉이나 관계의 질적인 측면이 이혼 후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변인들을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게 되었다(Amato & Rezac, 1994; Buchanan, Maccoby, & Dornbusch, 1996; Seltzer, 1991).

그런데 최근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성비가 점차 변화하고 있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여성의 숫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Scoon-Rogers & Lester, 1995).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왜, 어떤 여성들이 자녀양육을 포기하는지, 그들의 특성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남성의 모습과 어떻게 다른지, 이혼 후에는 자녀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최근 들어 한 실증연구(Stewart, 1999)는 자녀와 만나는 형식에 있어서 이혼 남녀를 비교한 결과, 대면 접촉 빈도에서는 남녀간 차이가 없었으나, 전화 또는 편지교환 빈도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Stewart(1999)는 이러한 이혼 남녀간 유사성이나 차이점을 부모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성역할 기대감의 차이, 양육권이 없는 부모라는 위치의 정서적, 구조적인 어려움 등 몇 가지 관점으로 설명하였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비양육자의 부모역할에 관한 연구들은 이혼 후 자녀와 접촉빈도가 상당히 낮을 뿐만 아니라, 비양육부모와 자녀관계가 단절되기도 한다는 것을 관측하였다. 특히 이혼상대를 지나치게 적대시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당수 이혼의 결과 자녀로 하여금 비동거부모를 잃게 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양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별거 후 자녀들이 비양육부모를 만나는지, 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받는지 등 단편적인 질문을 다루는 실태조사에 그쳤기 때문에(장혜경, 민가영, 2002; 전수정, 2003; 정순희, 문숙재, 최혜경, 1999; 조성연, 2004) 자녀와의 접촉양상이나 관계의 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며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더욱이 비양육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사가 양육부모로부터,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자료가 수집되어 왔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비양육자 남녀간 사회인구학적 특성차이나 전배우자와의 관계 등 이혼 관련 특성 차이를 탐색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하겠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이혼남녀를 대상으로 자녀와의 접촉과 관계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혼 후 자녀와의 접촉정도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지만, 특히, 이혼 후 부부관계가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Dudly, 1991). 전배우자와의 관계의 질이 좋을 때 자녀와 활발한 접촉과 자녀양육에 적극적 참여를 하게 되고(Masheter, 1991), 이는 자녀의 적응과 발달에 긍정적으로 관련된다는 것이다(Amato & Rezac, 1994).

본 연구는 첫째, 비양육부와 비양육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이혼관련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둘째, 비양육부와 비양육모의 자녀와의 접촉정도나 자녀관계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셋째,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이혼관련 특성들이 자녀와의 접촉이나 관계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즉, 자녀와의 접촉이나 관계만족도에 대한 성별 차이가 이들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나타나는지 또한 어떠한 특성이 접촉이나 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 관련연구 고찰

### 1. 이혼 후 비양육부모의 자녀와의 접촉 및 관계

최근 들어 이혼부부간 부모역할과 책임을 공유하고 자녀와 긴밀한 접촉 및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혼당사자 뿐 아니라 자녀의 적응에 기능적이라는 견해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서구에서는 비양육부모-자녀간 접촉의 성격과 내용, 그리고 그들 관계의 질을 탐색하는 실증적 연구들이 증가하였다.

미국의 이혼가정 대표적 샘플에 기초한 Seltzer(1991)의 연구에 의하면 이혼가정 아동의 42%가 별거하는 부모와 1달에 1~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의 연구에서는(Schaick & Stolberg, 2001; Struss, Pfeiffer, Preuss, & Felder, 2001) 자녀와의 접촉빈도가 이보다 높아, 부모이혼 직후 1~2년 동안 약 80% 가량의 이혼가정 자녀가 이혼법정에서 추천하는 접촉빈도, 즉 1달에 1~2회 이상 접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이혼 후 비양육부모와 자녀와의 접촉의 실태를 조사하여 보고하고 있다. 양육모들이 응답한 2000년 이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혼가정 자녀 중 별거하게 된 부모와 거의 접촉 없이 살고 있는 비율이 40~50%로 거의 절반 정도였다(장혜경·민가영, 2002; 전수정, 2003). 만나는 경우에도 그 중 정기적 접촉이 30~41%, 나머지는 생일, 명절 등 특별한 경우만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의 접촉빈도 실태는 앞에서 언급한 미국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연구 보고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수집한 데이터에 기초한 것이 대부분으로, 비양육부모를 직접 대상으로 한 경험연구는 찾기 힘들며, 비양육부모 대상의 몇몇 연구는 사례연구(유희정, 2005; 천혜정·최혜경, 2001)에 그치고 있다.

이혼 후 자녀와의 접촉정도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중 전배우자와의 갈등이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가 있다(Dudly, 1991). 이혼과정이 갈등적인 경우 그리고 이혼부부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경우 비양육부모는 자녀와 접촉정도가 낮으며 자녀양육 참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서, 장혜경 과 민가영(2002)의 심층면접에 의하면 자녀가 양육부모의 눈치를 보며 비동거부모를 만난다는 것이다. 즉, 그들의 만남에 대한 열쇠를 전배우자가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혼 후 자녀와 계속적인 접촉을 유지하는데 전배우자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및 상호지지적 관계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이혼할 당시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이혼 후 비동거자녀와의 접촉수준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Struss *et al.*, 2001)가 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자녀와 접촉정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Arditti와Madden-Derdich(1993)에 따르면 비양육부모와 자녀간 상호작용은 1~2년 안에 극적으로 감소하며, 이혼기간이 길수록 그들 사이에 공유경험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비동거부모가 재혼한 경우 재혼하지 않은 경우보다 자녀와의 접촉이 줄어들며, 학력이 낮거나,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남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녀양육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여 양육비 지급뿐 아니라 자녀와의 접촉 또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Dudly, 1991). 양육권 소재에 만족한 부모일수록 서로 빈번한 접촉

을 하고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Arditti & Kelly, 1994)에 미루어볼 때 양육권을 소유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이혼과정에서 양육권을 원한 정도가 자녀와 계속 만나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은 비양육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다루면서 흔히 자녀와의 접촉빈도를 측정하였으나, 최근 들어 관계의 또 다른 차원으로 관계의 질을 탐색하자는 주장이 있다. 잦은 접촉이 반드시 긍정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자주 만난다 하더라도 가깝지 않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 친밀성이나 관계만족도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Amato & Gilbreth, 1999). Buchanan *et al.*,(1996)은 접촉빈도와 긍정적 감정은 단지 중간정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보고한 바 있다. Davies 와 Cummings(1994; Amato & Gilbreth, 1999)에서 재인용)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을 때 자녀의 정서적 안정감이 강화되고 불안과 우울이 감소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가 이혼가정의 자녀에게 미치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고려해 볼 때, 부모와 자녀가 만나는 횟수뿐 아니라 그들이 만나는 동안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정서적 유대 또한 중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혼 후 비양육부모의 자녀와의 관계를 다루면서 자녀와의 접촉빈도와 더불어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하고자 한다.

## 2. 비양육부모의 자녀와의 접촉 및 관계에서의 성별차이

서구에서는 최근까지도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대부분 여성이 양육권을 갖고 있었으나, 1995년 미국의 한 통계치에 의하면(Herrerias, 1995) 비양육모의 숫자가 100만에 이르는 등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여성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성비가 변화하면서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이혼 후 부모역할 행동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를 탐색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비양육자의 성별에 따라 이혼 후 부모역할 참여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데(Furstenburg, Nord, Peterson, & Zill, 1983; Hetherington, 1982; Seltzer & Bianchi, 1988에서 재인용; Stewart, 1999), 이러한 남녀 차이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서구사회에서는 여성이 자녀양육의 역할을 맡아 수행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기대 때문에 비록 양육권을 갖지 않더라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자주 자녀와 만난다는 주장이 있다(Furstenburg *et al.*, 1983; Grief, 1985). 선행연구에 의하면, 여성이 결혼기간동안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가졌

었으며, 그런 맥락에서 이혼 후에도 여성이 남성보다 일상생활에서 자녀에게 더욱 양육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Herreias, 1995). 접촉의 유형에 따른 남녀차이를 조사한 연구에서는(Stewart, 1999) 남성보다 여성이 전화 및 편지왕래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rditti와 Madden-Derdich(1993)도 비양육모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여성들은 자녀를 기르지 못하는 입장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고, 자녀의 복지에 관심을 갖고 앞날을 걱정하고 있었으며,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들이 한 달에 몇 번 이상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이혼 후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여성은 남성보다 자녀와 덜 만나고 소원해진다고 지적인 연구결과가 있다(Herreias, 1995). 서구에서는 여성의 비양육상태가 비규범적이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여성들은 자신들이 부적합하고 결점이 많은 엄마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Grief, 1985). 그들이 양육권을 포기한 이유를 살펴보면, 재정적 어려움, 정서적 문제, 자신을 찾고 싶은 욕망 등(Herreias, 1995)이 있으며, 또한 자녀를 다루기 힘들어서, 자녀가 아빠랑 살기를 원해서(Buchanan, *et al.*, 1996), 제대로 부모 역할을 하지 못해서 등 구체적인 부모역할에 어긋나는 부정적인 이유로 양육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이혼 후 부모역할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남녀모두 이혼 후 자녀와 낮은 접촉수준을 보이며, 뚜렷한 남녀차이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Grief, 1985; Stewart, 1999).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들은 양육권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죄의식과 무력감을 느끼는 등(Arditti & Kelly, 1994; Arditti & Madden-Derdich, 1993),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뿐 아니라, 방문스케줄의 융통성 부족, 방문회수의 부족(Furstenburg *et al.*, 1983; Herrerias, 1995) 등 양육참여에 구조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 경험은 성별에 관계없이 자녀와의 접촉빈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비양육부모의 대면접촉 빈도에 있어 성별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지적된다(Stewart, 1999). 이와 같이 이혼 후 비양육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연구가 꽤 진행된 서구에서도 비양육부모의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남녀차이에 대한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여주지 못한다. Stewart(1999)는 이혼 남녀간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이혼관련 특성을 비교하여 그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이야말로 자녀와의 계속적인 접촉유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작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이혼한 여성들이 친권이나 양육권을 갖고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장혜

경, 민가영, 2002), 비양육부의 숫자 또한 증가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비양육부모의 성에 따른 특성이나 자녀와의 관계를 비교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혼한 남녀간 자녀와의 접촉정도나 관계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 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학력, 경제상태를 남녀간 비교해보고, 자녀연령 및 자녀가 누구와 살고 있는지, 재혼은 했으며, 전배우자에게 어느 정도 긍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양육권이냐 면접교섭을 어느 정도 원했는지 남녀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들 변수들이 자녀와의 접촉이나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이혼 남녀의 적응지원 방안 모색(2003년도 두뇌한국 21사업 연구과제)”을 위해 수집된 자료의 일부를 분석한 결과이다.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혼 경험에 있는 남녀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는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이루어졌다. 통계청이 2003년도에 발표한 ‘2002년 혼인·이혼 통계’를 기초로 하여 남녀 각각에 대해 연령별 이혼자 구성비를 산출하였으며, 여기에서 산출된 연령대별 비율에 맞추어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이혼과정에 대한 회고의 정확성과 이혼이후의 적응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이혼한지 5년 이내의 사람들로 제한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이혼자들을 위한 각종 모임, 단체 및 일반기관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였으며, 전문조사요원과 가족학 전공자들이 직접 조사하였다. 부실기제를 제외한 355부 질문지 중에서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서 양육권이 없는 부 또는 모대상자를 추려서 총 92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 2. 변수의 설정과 측정

먼저 이혼남녀의 개인적 특성으로 학력, 경제상태, 자녀연령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혼관련 특성으로는 서구의 연구에서 이혼남녀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탐색된 변수를 참조로 하여 자녀의 주거상황, 재혼 여부, 전배우자와의 긍정적 감정, 양육권 및 면접교섭을 원한 정도를 측정하였다. 학력은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 졸업 이상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경제상태를 단일문항으로 물어보아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상태가 좋은 것으로 보았다. 이혼 당시 양육권을 원한 정도는 5점 척도로, 면접교섭 정도는 4점 척도로 살펴보았으며, 전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감정정도

<표 1> 비양육부와 비양육모의 특성 비교

특성	비양육부(평균 또는 %)	비양육모(평균 또는 %)	X <sup>2</sup> 또는 t 값
학력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이상 5.7 11.4 82.9	7.0 42.1 50.9	X <sup>2</sup> = 10.28*
경제상태	(1-5점) 2.60	2.61	t = 0.07
자녀연령	유아기 아동기 이상 62.8 37.1	73.7 26.3	X <sup>2</sup> = 1.20
자녀 주거상황	부/모와 함께 친척과 함께 88.6 11.4	71.9 28.1	X <sup>2</sup> = 3.53 <sup>†</sup>
재혼여부	재혼안함 재혼했음 91.4 8.6	75.4 24.6	X <sup>2</sup> = 3.68 <sup>†</sup>
전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감정	(1-5점) 3.26	2.60	t = 3.81***
양육권 원한 정도	(1-5점) 2.60	3.40	t = 3.00*
자녀면접 원한 정도	(1-4점) 2.09	2.60	t = 2.21*

†: p < .1, \*: p < .05, \*\*: p < .01, \*\*\*: p < .001

또한 단일 문항의 5점 척도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자녀의 특성으로 막내자녀의 연령을 사용하였는데, 유아기의 경우, '0'을, 아동기 이상의 경우에는 '1'을 부여하여 이분화 했다.

이 연구의 첫번째 종속변수인 자녀와의 접촉은 전화 통화와 대면 접촉의 '전혀 없음'부터 '거의 매일'까지 5점 척도로 측정된 빈도를 합하여 측정하였는데 점수가 많을수록 이혼 후 비양육부모와 자녀사이에서 접촉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종속변수인 부모-자녀간 관계 만족도 척도는 현온강과 조복희(1994; 이경희, 2003에서 재인용)의 부모역할 만족도 척도 및 Simons 등(1992; Bronstein, Stoll, Clauson, & Abrams, 1994에서 재인용)의 Supportive Parenting Scale을 참조하여 5문항을 작성하였다. 예를 들어, '나는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즐겁다', '나는 아이들과 사이가 좋은 편이어서 기쁘다' 등을 질문하였으며, 점수가 클수록 관계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 α = 0.80이다.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표 1>은 비양육부모의 특성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를 비교, 제시한 것이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력은 이혼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성의 학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상태는 별로 좋지 않은 편으로, 남녀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 이혼 남

녀 모두 아동기 이상의 자녀보다 유아기 자녀가 훨씬 많았으며, 이혼 후 자녀의 거주상황은 부모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부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28.1%)는 모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11.4%)에 비해 할머니, 할아버지 등 친척과 함께 사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 즉, 부모가 이혼한 후 어머니와 동거하지 못하는 아이의 경우 친아버지와도 함께 살지 못하며 친척과 동거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버지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워 조부모를 비롯한 친척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관측된 것으로 판단된다. 서구의 연구에서도(Grief, 1985; Stewart, 1999) 비양육모의 경우, 비양육부 경우보다 자녀가 친척과 함께 사는 비율이 훨씬 높아 모가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자녀의 절반정도가 조부모 등 친척과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이혼 후 남성의 재혼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이경희, 2003; 장혜경, 민가영, 2002), 본 연구에서는 남성(8.6%)에 비해 여성(24.6%)이 3배정도 많이 재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양육모가 재혼한 비율이 비양육부보다 많은 것은 재혼한 자녀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욱 걸림돌이라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혼 후 자녀를 키우지 않아도 되는 여성의 경우 재혼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혼 후 남성(3.26점)이 전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여성(2.60점)에 비해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희정(2005)의 심층면접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전배우자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관측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양육권을 결정하는 당시 아이를 맡겠다고 원한 정도와 양육권을 소재하지 않은 후에 자녀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는지 살펴본 결과, 두 질문 모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척도의 중간값으로 3점을 양육권 소유여부에 개의치 않는다는 중

1) 이혼한 사람들을 위한 기관 및 단체(이혼자 동호회, 한부모가정 연구소, 기러기모임 등)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여성가장관련 프로그램 수강자, 사회복지관, 가정법률상담소 및 재혼상담소 등을 대상으로 협조를 요청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2〉 비양육부와 비양육모의 자녀와의 접촉빈도 및 관계만족도 비교

접촉 및 관계		비양육부 (N = 35)	비양육모 (N = 37)	전체 (N = 92)
전화접촉	전혀 없음	5.7	21.4	15.4
	1년에 1~2회	31.4	12.5	19.8
	1달에 1~2회	40.0	32.1	35.2
	1주일에 1~2회 이상	22.9	33.9	29.7
	합계	100.0	100.0	100.0
	평균(1-5점)	2.80	2.92	t = 0.51
대면접촉	전혀 없음	17.1	23.2	20.9
	1년에 1~2회	34.3	32.1	33.0
	1달에 1~2회	42.9	32.1	36.8
	1주일에 1~2회 이상	5.7	12.5	9.9
	합계	100.0	100.0	100.0
	평균(1-5점)	2.37	2.35	t = 0.01
관계 만족도	평균(5-25점)	13.94	17.46	t = 3.54***

\*: p < .05, \*\*: p < .01, \*\*\*: p < .001

립적 반응으로 평가했을 때 남성(2.60점)은 평균적으로 바라지 않는다는 쪽인 반면, 여성(3.40점)은 양육하기를 바라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대상자들의 성별에 따른 전반적인 접촉빈도와 관계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우선, 접촉빈도에 관한 분석결과, 응답자의 20.9%가 이혼한 후 자녀와 전혀 만나지 않았으며, 15.4%가 전화통화 또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로부터 자료를 수집한 연구(장혜경, 민가영, 2002)에서는 응답자의 절반정도의 경우가 이혼 후에 전남편과 그들 자녀가 전혀 만나지 않는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 비양육부모가 직접적으로 응답한 본연구의 접촉단절 비율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혼 남녀간 접촉정도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전화통화 정도에서 유의한 성별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이혼 후 자녀와 전화 또는 편지왕래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서구의 연구(Stewart, 1999)와는 다르다 하겠다. 본 조사결과, 1주일에 한두 번 이상의 잦은 전화접촉은 남성(22.9%)보다 여성(33.9%)이 많게 나타났지만, 전혀 하지 않는다는 비율 또한 여성(21.4%)이 남성(5.7%)보다 훨씬 많아, 빈도수가 상쇄되어 평균빈도에 있어 유의한 성별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면접촉 빈도 또한 유의한 성별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경우도 전화통화와 마찬가지로 자녀와 전혀 안 만나는 빈도와 1주일에 한두 번 이상 자주 만나는 빈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접촉의 경우 서구의 연구(Stewart, 1999) 또한 본 연구와 같은 방향으로 이혼 후 자녀와 별거하는 남성은 여성과 유사한 정도로 자녀를 방문하여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관계만족도 평균치 비교결과 여성(17.46점)이 남성(13.94점)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접촉빈도에 있어 남녀간 유의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 여성은 남

성보다 함께 살지 않는 자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만나는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등 긍정적 유대를 보인다는 것이다. 비록 단순비교의 결과이지만, 물리적으로 떨어져 사는 자녀와 만나는 횟수는 이혼 남녀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자녀와 가까운 정도를 평가해볼 때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녀와 사이가 좋아서 만족스러워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비양육부모와 자녀와의 접촉 및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일련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자녀와의 접촉과 관계만족도 변수의 상관관계는  $r = 0.59$  ( $p < .001$ )의 중간정도로 나타나, 독립적 영역의 두 가지 종속변수로 취급하였다.

모델 I에서는 자녀접촉,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이혼남녀의 성 차이를 살펴보았다. 모델 II에서는 앞에서 응답자 남녀간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이들 변수들을 고려한 후에도 여전히 성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떠한 특성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회귀식에 포함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자녀면접을 위한 정도는 양육권을 위한 정도와 상관이 높아( $r = 0.69$ ,  $p < .001$ ) 독립변수에서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변수들은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표 3〉에 의하여 첫 번째 종속변수인 자녀와의 접촉에 대하여 이혼 남녀간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이혼자의 사회인구학적 및 이혼관련 특성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후에도 부모의 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이혼 후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들은 여러 특성변수들을 고려한 후에도 비슷한 정도로 자녀와 전화통화나 대면접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접촉빈도에 유의한 예측변수는 자녀연령, 양육권을 위한 정도, 전배우자와의 긍정적 감정으로 나타나, 자녀가 유아기 보다는 아동기 이상일 때, 이혼당시 양육권을 원

<표 3> 비양육부모의 자녀와의 접촉 및 관계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접촉				관계만족도			
	모델(1)		모델(2)		모델(1)		모델(2)	
	b	β	b	β	b	β	b	β
성별	0.11	0.03	0.17	0.04	3.52	0.36***	3.78	0.38***
학력			-0.08	-0.05			0.34	0.08
경제상태			-0.16	-0.08			0.39	0.08
자녀연령			1.05	0.25*			2.33	0.22*
자녀 주거상황			0.03	0.01			-0.34	-0.03
재혼여부			-0.04	0.01			-0.71	-0.06
양육권 원한정도			0.52	0.34***			1.19	0.32**
전배우자와의 긍정적 감정			0.49	0.21*			0.44	0.08
상수	5.06		2.44		10.42		2.64	
R2			0.16		0.12		0.25	
F			3.08**		12.53**		4.69***	

\*: p < .05, \*\*: p < .01, \*\*\*: p < .001

- 주: 1) 성별-남 0, 여 1  
 2) 자녀연령-유아기 0, 아동기 이상 1  
 3) 주거상황-부모와 함께 0, 친척과 함께 1  
 4) 재혼여부-재혼안함 0, 재혼했음 1

했을수록 이혼 후 접촉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배우자와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지지적 관계일 때 비양육부모가 자녀와 자주 만난다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유희정, 2005; Amato & Rezac, 1994; Arditti & Madden-Derdich, 1993; Dudley, 1991)와 일치한다. 그런데 이혼 후 자녀가 친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친척과 함께 살 때 비양육부모가 자녀를 더 자주 만난다는 서구의 연구결과(Stewart, 1999)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거주상황이 접촉정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척과 함께 사는 경우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적기(21.7%) 때문에 영향력 설명에 다소 무리가 따른 듯하다. 중다회귀분석에 포함된 8개 독립변수들은 자녀접촉 총변량의 16%를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 모델 I에서 이혼 남녀간 차이가 나타났다. 모델 II에서 인구학적 특성변수나 이혼관련 특성변수들이 첨가된 후에도 여전히 남녀간 차이가 나타나, 비양육부 보다 비양육모가 이혼 후 자녀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에 자녀연령, 양육권을 원한 정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가 유아기보다는 아동기 이상일 때, 이혼당시 양육권을 희망한 정도가 높을수록 이혼 후 자녀와의 관계가 더욱 만족스러운 것을 알 수 있다. 흥미롭게도 모델에서 특성변수들을 고려한 후에도 부모의 성별 변수(β = 0.38, P < 0.001)가 가장 강한 영향력을 나타내, 이혼 후 비양육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들 독립변수들은 자녀관계 만족도 총 변량의 25%를 설명하고 있다.

## V. 결론 및 논의

이혼 후 자녀양육은 부모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비양육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이혼관련 특성을 남녀간 비교하였으며, 그들의 자녀와의 접촉빈도 및 관계의 질을 조사하고, 이에 있어 남녀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 특성변수들이 자녀와 접촉수준 및 관계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이혼한 지 5년 이내의 1명 이상의 자녀를 두었으나 양육권을 갖지 않은 부 또는 모 92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들은 대체로 자녀와의 접촉이 제한적이어서 절반이상(53.9%)의 응답자가 전혀 만나지 않거나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절반이상의 비양육부모들이 소식을 단절하고 살거나, 1년에 한 두 번 정도로 명절이나 생일 등 특별한 날이 되어야 만나는 소원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자주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녀의 적응과 발달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Amato & Rezac, 1994; Seltzer & Bianchi, 1988)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최근 이혼가족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우리사회의 현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선행연구들도 부모의 이혼 후 자녀들을 누가 양육하건 그들이 여전히 부모 모두에게 속해 있음을 알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오은순, 2002).

이혼 남녀간 접촉빈도를 비교해볼 때 서구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남녀모두 유사한 정도로 자녀와 전화 또는 대면접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와 접촉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에 대하여 Stewart(1999)는 사회가 여성으로 하여금 양육자의 역할을 이행하도록 기대하기 때문이란 이유를 들어 설명하였다. 물론 한국의 이혼상황에서도 전통적인 성역할 기대감에 따른 여성의 위치를 부인할 수 없지만, 한국의 대다수 이혼이 부부상호간의 극단적인 적대감속에서 이루어지는 까닭에 이혼이 가족에서 배제된 구성원과 접촉하지 않는 소원한 관계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이혼자들은 남녀모두 비양육상태에 정서적 어려움을 느끼고, 자녀방문을 비롯한 양육 참여에 구조적 장애를 경험하여 자녀생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며, 이러한 부정적 경험은 성별에 관계없이 이혼 남녀 모두 자녀와의 접촉정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본 자료에서 부모-자녀간 소통두절에 따른 관계 단절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는 결과와 연결된다. 자녀와 전혀 접촉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이들은 남자의 자식'이라는 한국의 강한 부계혈통 중심의식이 이혼상황에서 비양육자인 어머니로 하여금 자식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으며, 이혼녀와 재혼에 대한 최근의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젊은 이혼여성들이 재혼에 걸림돌이 되는 자녀를 포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박부진, 1999) 판단된다. 이혼 후 부모가 연락을 끊는다는 사실은 자녀로 하여금 '버려졌다'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다(박부진, 1999)는 점에서 자녀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겠다.

둘째, 자녀의 연령, 자녀양육권을 위한 정도, 전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이혼 후 자녀와의 접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보다 아동기 이상의 자녀가 별거하는 부모와 더욱 빈번하게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이가 나이가 들며 부모의 이혼을 이해하고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현상이 아닐까 짐작된다. 또한 자녀가 성장하여 학업이나 진로문제에 부딪치며 부모의 조언이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게 되고 자녀 스스로 따로 사는 부모를 찾을 가능성도 크다. 부분적으로 자녀연령이 많아져 청소년이 되면서 전화통화 등 간접적 접촉수준이 높아진 때문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비양육 부모는 청소년 자녀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면접촉이 어렵더라도 전화통화, 이메일 주고받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조성연, 2004) 판단된다. 이러한 행동이 양육부모와 자녀문제를 의논하는 협력적 부모역할로 연결될 수 있다면 이혼 후 부모역할을 새롭게 형성하는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이혼 후 자녀와의 접촉정도에 양육권을 원한 정도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여, 자녀와 함께 살면서 자녀를 돌보고 싶은 욕망은 이혼과정에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자녀와 접촉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듯하다. 따라서 비양육자의 자녀양육에 대한 바램이 자녀와 만남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면접교섭의 인식과 활용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전배우자에 대해 긍정적 감정을 가질수록 자녀와 접촉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이혼 후 전배우자에게 갖는 정서적 유대감의 기능적인 측면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혼 부부간 관계가 갈등적인 경우 자녀와 비양육부모와의 잦은 접촉은 오히려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서구의 연구결과(Amato & Rezac, 1994)를 상기해 볼 때, 이혼 전이나 이혼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전배우자와의 악화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이혼당사자의 노력이 요구된다. 자녀가 한쪽 부모를 만날 때 편안한 상태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이혼한 부부들이 담당해야 할 몫이라 생각되며, 나아가서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을 자녀의 복지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자녀들의 요구와 관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겠다.

서구의 연구에서 자녀와의 접촉빈도에 커다란 영향력을 보여준 동거 또는 비동거부모의 재혼여부는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 이유를 살펴볼 때, 응답자의 18.5%만이 재혼한 경우이기 때문에 영향력 설명에 다소 무리가 따른 듯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비양육부모와 자녀와의 접촉빈도는 서구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편차 또한 크지 않아 재혼여부 등의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는 점도 부언하고자 한다.

셋째, 이혼 후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는 평균적으로 만족스러운 정도였으며, 이혼남녀간 차이가 있어서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성은 남성보다 자녀와 가까운,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더욱 만족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 차이를 서구의 연구에서는 전통적 성역할 기대감의 차이로 해석한다(Stewart, 1999). 남성들은 자녀와 일상적인 접촉 및 상호작용 정도가 여성에 비해 낮은 반면, 전통적인 어머니 역할에 익숙한 여성들은 자녀와 일상생활에서 관심을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나누는 대화나 감정표현에서 더욱 친근한 등 관계가 밀착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표현적 아버지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서구에서는 과거에 비해 최근 코호트의 비양육 부들이 자녀와 더 활발한 접촉을 보인다는 견해가 있다(Cooksey & Craig, 1998). 이러한 추세에 대하여, 서구의 연구들은 그동안 이혼자들을 위한 부모교육의 효과 또한 있

우리라 기대한다(U.S. Commission on Child and Family Welfare, 1996; Amato & Gilbreth, 1999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혼자들의 부모역할 양상이나 변화모습을 그려본 연구가 없으나, 이혼에 대한 행동과 태도변화가 관찰되는 현 시점에서 이혼 후 부모역할수행을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교육이 요구된다 하겠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이혼한지 5년 이내 대상자로 국한된 자료의 성격으로 인하여 자녀연령 변수에 제한이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간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다양한 연령층 아동을 대상으로 접촉의 성격 및 양상을 파악하고, 세부적으로 연령층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하리라 본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서구의 문헌에 기초하여 변수들이 선정되고 결과를 비교분석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서구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동거하지 않는 부모의 면접교섭에 대한 인식 및 활용부족으로 인하여 다양한 접촉형태나 활동내용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구체적인 측정방법을 이용한 실증적 자료가 축적되어야 하리라 본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기존연구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부터 비양육부모에 관한 정보를 얻는 방식으로 수집된 자료에 의존해 왔다는 제한점을 극복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직접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그들의 부모역할 경험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기대할 수 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간에 유지해오던 정서적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박부진, 1999)라는 의미에서 비양육부모가 갖는 면접교섭권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가 시급하다. 자녀와 접촉뿐 아니라 이혼 후 부부간 접촉 및 협력적 부모역할에 따라 실제 자녀의 적응 또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다.

## ■참고문헌

- 김영희, 한경혜(2004). 전배우자에 대한 애착, 부모역할 보상과 비용이 이혼한 부모의 협력적 부모역할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3), 201-217.
- 박부진(1999). 재판이혼시 자녀양육자 선정의 실태 및 문제점. *가족과 문화*, 11(2), 94-121.
- 오은순 역(2002). Similansky저, 이혼가정 아동. 학지사.
- 유희정(2005). 이혼후 비양육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및 협력적 부모역할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 185-216.
- 이경희(2003). 이혼한 한부모가 지각한 부모역할 보상과 비용 유형에 따른 심리적 복지.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 장혜경, 민가영(2002). 이혼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정책보고서.
- 전수정(2003). 양육 및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와 사회적 지지가 이혼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대 석사논문.
- 정순희, 문숙재, 최혜경(1999). 이혼 편모가족에 대한 자녀양육비 지원실태. *가족과 문화*, 11(1), 103-132.
- 조성연(2004). 여성한부모 가족의 모-자녀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53-167.
- 천혜정, 최혜경(2001). 홀아버지들의 이야기.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2), 23-41.
- 한경혜, 김영희(1994). 이혼여성의 전배우자와의 관계 및 협력적 부모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가족학논집*, 6, 103-128.
- Amato, P., & Gilbreth, J. G. (1999). Nonresident fathers and children's well-being: A meta-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557-573.
- Amato, P., & Rezac, S. (1994). Contact with nonresident parents,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ren's behavior. *Journal of Family Issues*, 15(2), 191-207.
- Arditti, J. A., & Kelly, M. (1994). Fathers' perspectives of their co-parental relationships postdivorce. *Family Relations*, 43, 61-67.
- Arditti, J. A., & Madden-Derdich, D. A. (1993). Non-custodial mothers. *Family Relations*, 42, 305-314.
- Bronstein, P., Stoll, M. F., Clauson, J. & Abrams, C. L. (1994). Fathering after separation or divorce. *Family Relations*, 43, 469-479.
- Buchanan, C. M., Maccoby, E. E., & Dornbusch, S. M. (1996). *Adolescents after divor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ooksey, E. C., & Craig, P. H. (1998). Parenting from a distance: The effects of paternal characteristics on contact between nonresidential fathers and their children. *Demography*, 187-200.
- Dudly, J. R. (1991). Increasing our understanding of divorced fathers who have infrequent contact with their children. *Family Relations*, 40, 279-285.
- Furstenberg, F. E., Nord, C. W., Peterson, J. L., & Zill, N. (1983). The lifecourse of children of divor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656-668.
- Furstenberg, F. E., & Nord, C. W. (1985). Parenting apart: Patterns of childrearing after marital disrup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 893-904.
- Grief, G. L. (1985). *Single fathers*. Lexington, MA: D.C.

Heath.

- Herrerias, C. (1995). Noncustodial mother following divorce. *Marriage and Family Review*, 20, 233-255.
- Hilton, J. M., Desrochers, S., & Devall, E. L. (2001). Comparison of role demands, relationships and child functioning in single-mother, single-father and intact familie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35(1/2), 29-56.
- Kissman, K. (2001). Interventions to strengthen non-custodial father involvement in the lives of their children.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35(1/2), 135-146.
- Masheter, C. (1991). Postdivorce relationships between Ex-spouses: The roles of attachment and interpersonal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03-110.
- Schaick, K., & Stolberg, A. L. (2001). The impact of paternal involvement and parental divorce on young adults'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36(1/2), 99-121.
- Scoon-Rogers, L., & Lester, G. H. (1995). *Child support for custodial mothers and fathers*: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 Seltzer, J. A. (1991). Relationships between fathers and children who live apart: The father's role after separ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79-101.
- Seltzer, J. A., & Bianchi, S. M. (1988). Children's contact with absent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663-677.
- Seltzer, J. A., & Schaeffer, N. C. (1989). Family ties after divorce: The relationship between visiting and paying child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1013-1032.
- Starrels, M. E. (1994). Gender differences in parent-child relations. *Journal of Family Issues*, 15, 148-165.
- Stewart, S. D. (1999). Nonresident mothers' and fathers' social contact with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894-907.
- Struss, M., Pfeiffer, C., Preuss, U., & Felder, W. (2001). Adolescents from divorced families and their perception of visitation arrangements and factors influencing parent-child contact.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35(1/2), 75-89.

---

(2006년 4월 11일 접수, 2006년 7월 7일 채택)